3강/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라

I. 오늘의 포인트
1) 분열, 분쟁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2)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게 한다.

II. 교회의 당파 문제 해결 두 번째 방법:
자기 인식 – 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1.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1) 어린 아이의 신앙 – 육신에 속한 자
① 어린 아이의 뜻: 헬라어로 네피오이스(nhpivoi")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② 특징: 시기와 분쟁의 삶을 산다.
③ 시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시기'에 해당하는 말은 '젤로스'(zh'lo")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뜨거움', '열심' 등을 의미한다. 사실 시기는 열심히 있으니까 발생되는 것이다. 뭔가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시기이다. 시기인 젤로스는 질투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질투는 그릇된 경쟁의식에서 나온 감정이다. 그러나 바울은 대개 '젤로스'(zh'lo") 를 육에 속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로 본다.(갈 5:20)
③ 분쟁이란 무엇인가?
'시기'가 외적으로 표출하게 되면 반드시 분쟁을 유발한다. '분쟁'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리스'(e[ri")로 '분열'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분열'이 '분쟁'의 결과였던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파로 나누어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며 각기 독자적인 태도와 노선을 취한 이유가 바로 시기와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요소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④ 열정, 뜨거움은 하늘에 속한 단어이다.
본래 열정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단어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나타났을 때 시기로 나타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하나님의 열정은 시기로 나타나지 않고 희생으로 나타난다. 인류에 대한 열정, 생명에 대한 열정은 자기의 헌신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인간에 있는 열정은 왜곡된 것이기에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2) 성숙한 신앙인 – 영에 속한 자
① 영에 속한 자의 다른 표현은 신령한 자들이다.
신령한 자란? 헬라어 '프뉴마티코이스'(pneumatikoi'") 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킨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숙해 가는 자들을 가리킨다.
② 따라서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한다.
③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첫째 창조,
둘째 희망,
셋째 생명을 준다.
성령 안에 사는 자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 일치를 위한 사역을 그리고 창조적인 일에 한다.

2. 과연 우리는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기에서 벗어나 과연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갈 수 있을까?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신령한 자의 신앙에 대해 말하다가 4-7절을 말한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시기심에서 벗어나 성숙한 사람으로 가는 첫 걸음이 바로 자기 인식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특징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성숙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임을 알게 될 때 시기심을 극복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각 자는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일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3.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의 특징

1)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란 '동료', '다른 이와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다. 같은 일을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분열할 때이다. 같은 마음이면 정말 행복한데 다른 마음일 때는 정말 힘들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인식이

분명하면 서로가 적대시 하거나,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다. 오직 함께 일을 만들어 갈 것이다.

2) 하나님의 밭
밭을 가꾸는 것은 열매를 위함이다. 열매를 맺지 않는 곳을 황무지라고 한다. 농부가 농사를 지었을 때 열매가 없으면 허무하게 된다. 농부의 자랑은 열매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교회는 자신의 열매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③ 하나님의 집 – 집은 안식처이다. 따라서 집은 안식처가 되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집은 아름답게 세워야 하는 것이지 허물어뜨리면 안 된다.

4.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가정과 집과 공동체가 모두 아름답기를 원하면서 현재 어떻게 만들어 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그리고 후에는 모두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현재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면서 내일에 멋진 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 후에 불이 일어나면 자신이 한 것이 드러날 것이다. 타지 않고 남아 상급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4. 배울 점
1)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바울은 각각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고 한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삶에서 취하는 태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자신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고 속이면 안 된다.

2)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일을 해야 한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롬8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우리가 있는 곳에 평안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